

엔터리 계산에 1132t 초과...작업할수록 오류 속출

세월호 육상 거치 연기 왜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난관에 봉착했다. 기초자료 부실 탓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무게 산정이 크게 어긋났다. 이대로는 추가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무게를 정확히 모르니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추정치가 오락가락하면서 육상 거치는 다음 소조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 합동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룻만에 1000톤 오락가락=세월호 무게 추정치가 하루 사이에 1132톤이 올랐다. 이 때문에 7일 목표했던 육상 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모듈 트랜스포터 24대 추가 투입해도 감당 못해

소형→중대형 교체 추진...반잠수선 위서 수습 시작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샬비지로부터 세월호 선체 무게가 1만4592톤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추정치 1만3460톤보다 무려 1130톤보다 1132톤이나 늘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 샬비지는 날카로운 물질로 선체를 찢러본 결과 진흙이 예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정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흙은 점성에 따라 같은 용량이라도 무게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선체조사위는 설명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실어 옮길 모듈 트랜스포터 지지력은 1만3000톤가량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배수를 통해 선체 무게를 빼려는 작업이 며칠간 이어졌다. 배수량이 예상보다 못 미치자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투입하는 대안이 떠올랐지만 1000톤 이상 추정치가 늘어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소형 트랜스포터 중대형으로=배수작업에 진척이 없자 해수부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소형이었던 탓에 지지력이 1만3000톤 가량이었고 이

를 중대형으로 교체하면 세월호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중대형 모듈 트랜스포터로 이송 작업을 추진했다면 필연대 이체사야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천공으로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며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다가 3일 모듈 트랜스포터 24개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선체 무게 추산이 잘못되면서 소형 트랜스포터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룻만에 중대형으로 교체 투입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배수 구멍 30cm 확대는 허용 안해=상하이 샬비지는 추가 감량을 위해 기존 지름 6~15cm인 배수 구멍을 30cm로 늘릴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선체조사위는 반대

했다. 기존 천공 결과로 미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도 선체만 더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무게를 다는 믿기 어렵다는 불신도 천공 확대를 제지하는 배경이 됐다.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도 수습활동은 계속=세월호의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 세월호 육상 거치가 어려워졌지만, 미수습자 수습활동은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박에 거치된 상태에서도 미수습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수습자가 추정되는 위치가 있다. 이에 가장 안전하고 최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 지적재조사 수뢰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됐다. 제3자 뇌물취득 및 뇌물수수 혐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4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5~2016년 사이 직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시 김 군수의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공무원 등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지적담당 공무원이 수행비서를 통해 김 군수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앞친데 덮친 비

오늘부터 최대 80mm

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세월호 육상 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가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데 최적기로 꼽히는 소조기(4~7일)에 예보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정박중인 세월호의 육상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육상거치를 도울 모듈 트랜스포터가 4일 목포 신항만 세월호 앞에 도열해 있다.

/연합뉴스

최고령 위안부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8명으로 줄었다. 재작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 별세한 피해자는 이 할머니가 아홉 번째다.

191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100세였던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센터 '평화의우리집'에 거주했다.

고인은 1934년 16세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귀국했다.

/연합뉴스

“선체조사위·해수부 못 믿어” 미수습자 가족 분노

사전협의 없는 수습 방안에 강력 반발... 보이콧 선언

“선체조사위·해양수습본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세월호) 들어가 손으로 직접 찾겠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선체조사위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육상 거치를 7일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가족들은 선체조사위와 현장수습본부의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브리핑 도

중 취재지원센터를 예고 없이 찾아와 선체조사위와 현장수습본부에 항의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의 한 명인 안산 단원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이 자리에서 “(선조위나 해수부에서)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내 딸이 세월호에 있는데 무시하는 선조위나 해수부를 인정 못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이어 “미수습자 (가족이) 없는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라며 “내가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찾을 것이다. 저희가 찾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 딸을 찾는데 왜 엄마인 나와 얘기하지 않냐. 이게 무슨 나라냐”며 “결

정할 때는 먼저 얘기해줄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먼저 얘기해줘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가족들은 “최소한 기자 브리핑을 하기 전에 미수습자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배 위에 한 발짝도 못 올라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앞서 이날 오전 미수습자 가족 만남의 광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조위와 해양수습본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객실 중 진실 규명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세월호 유가족 천막서 컨테이너로 이사

세월호 유가족들이 4일 목포신항 앞 도로변 천막생활을 끝내고 컨테이너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 말 세월호 목포신항 입항에 맞춰 내려온 유가족 60여명은 “세월호를 좀 더 가까이 보겠다”며 해양수습본부에 임시거처로 쓸 컨테이너 6개동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목포시민단체)’가 마련해 준 도로변 천막에서 생활했다.

유가족들의 노숙생활을 격정한 목포시민단체 측은 “선조위와 해양수습본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객실 중 진실 규명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단원과 희생자 진혼회와 어머니 김순길(50)씨는 “애초 가족들은 항만 안에 머무르

며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세월호를 보고 싶었다”면서도 “정부 대신 목포지역 사회와 전남도가 마련해 준 컨테이너 덕분에 비록 항만 밖에서라도 날씨와 관계없이 세월호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정미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대표는 “세월호 가족들엔 우리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미수습자 9명이 수습되고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목포지역사회가 끝까지 가족들을 보듬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유가족을 만나 “컨테이너를 너무 늦게 설치해드려 미안하다. 직원을 상주시켜 유가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취업준비생 울린 중고책 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중고 수험 서적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쇠고랑.

○~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공무원준비 카페에 중고 수험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온 취업준비생 47명에게 현금 49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김씨는 2~3만원대 소액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신고를 꺼릴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들킨다.

/전원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대지 1073평, 건물 336평
최저가 540,000,000
감정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건물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정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중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